

##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 I. 서론: 한국 개신교의 위기

### II.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정립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2.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개념들
3.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

### III.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근거

1. 하나님 형상(Imago Dei)과 생명사랑
2. 디아코니아 신학
3. 기독교인(교회)의 사회봉사(사회참여)를 배격하는 견해
4. 사회문제에 대한 신학적 노선

### IV.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고찰과 전망

1. 역사적인 고찰
2. 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망 - 제3섹터의 등장과 복지적 경제

### V. 결론: 기독교 사회복지의 나아갈 길: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경제

\* 기독교(Christianity)는 크게 천주교 (Roman Catholic), 개신교 (Protestantism), 정교 (Orthodox Church) 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를 일컫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독교를 지칭할 때는 개신교를 의미한다.

---

• ABSTRACT •

---

The Identity and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oncept of Local Community

Kim, Seong-ho

Since the early missionary period, Korea has a history of brilliant Protestant social welfare tradition to this day and has carried out various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Nevertheless, the quantitative growth of Protestantism began to decline in the 1990s and public trust from the general population fell sharply with it. In this regard, Korean Protestantism should establish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once again. For this purpose, when examining the role of Christian social work in academic, theological, and practical sen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stor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and the need to find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Through world history, Christianity has played an important social rol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fulfilling the mission of the Gospel. Also, a number of professional and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evolved and developed the efforts of the Christian church in modern Western society. The concepts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are emerging and emphasizing the theory of 'communities and sharing economy.' Korean Christianity and the Church must begin to incorporate these new concepts into their social work while keeping in mind the traditions of the past. This article suggests a new direction by emphasizing the core concept of the Christian tradition, Community, Korean Christian social welfare.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Church Social Work, Community, Local Community, Sharing Economy, Neo-liberalism

---

## I. 서론: 한국 개신교의 위기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한국인 중 55.1%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1984년 43.8%에서, 1989년 49.0%, 1997년 46.9%, 2004년 53.3%로 1997년 조사 자료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sup>1)</sup>. 하지만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파르게 진행된 개신교의 양적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교회 성장률 통계를 살펴보면 1985~95년에 35%나 감소했으며 1995~2005년 사이에는 1.6% 마이너스 성장률 증가를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신교의 성장률이 감소한 것에 반해 천주교와 불교는 성장률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1995~2005년 사이에 4% 신도수가 늘었고, 천주교회는 같은 기간 동안 74%의 성장률을 보였다.<sup>3)</sup> 다른 한편으로 종교 간의 수평적 이동도 심화되어, 1997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숫자는 204만 명인데 비하여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숫자는 115만 명, 천주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숫자는 34만 명 이었다. 또한 개신교를 믿다가 비 종교인이 된 숫자는 886만 명에 이른다(불교: 402만, 천주교: 180만).<sup>4)</sup>

개신교의 성장률이 감소한 데 비해 천주교회가 급격히 성장한 원인에 관해서, 조성돈<sup>5)</sup>은 천주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성을 가장 큰 요인이라

---

1)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2005년,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78>

2) 교회개신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2013년, <http://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67>

3) 강병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 41집, 2012년, 61-84.

4) 이원규, 「21세기 한국교회의 변화와 수평이동 현상」.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52집, 2005년, 132-158.

5) 조성돈, 「종교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과제」.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

고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천주교의 신비적 이미지와 사회봉사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는 마더 테레사를 비롯한 소록도에서 봉사하는 수녀들, 명동성당의 인권지킴이 같은 이미지가 포함된다. 오경환 신부<sup>6)</sup>는 일반인들이 천주교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 보편교회로서의 결속성, 성직자의 청렴성과 교회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정의와 인권활동 등을 열거했다. 특히 정의와 인권관련 천주교 신자 증가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높이 나타나다가 1990년대 중반 하락했다고 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천주교의 역할이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평가는 1998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이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비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종교의 위상을 평가한 결과 천주교는 ‘구제’, ‘봉사’ 등 대 사회적 역할과 ‘종교 지도자의 자질 우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개신교는 ‘헌금 강조, 교세 확장’, ‘종교 지도자 자질’, 측면에서 타종교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비종교인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어디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기대할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나 되었고, ‘사회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8%, ‘사찰’이 9.4%, ‘성당’이 7.4%로 나타났으며, ‘교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sup>7)</sup> 2013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조사한 설문문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

이론』 32권 0호, 2007년, 93-120.

- 6) 2006년 11월 30일 ‘현대인의 마음 사로잡은 가톨릭 성장’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최근 10년간 가톨릭 신자수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경향신문 2006년 11월 3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301729351&code=96020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301729351&code=960206)
- 7)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분석』, 도서출판 두란노, 1998.

뢰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이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4.6%를 차지했다. ‘신뢰한다(매우+약간)’는 대답은 19.4%였고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sup>8)</sup>.

한국 개신교가 신뢰도를 상실하게 된 원인으로 강병오<sup>9)</sup>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교회 성장 제일을 목표로 교회가 운영되면서 교회가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지도자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사회적인 윤리의식을 키워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회 외적으로 비추어진 위와 같은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 교회는 선교초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사회복지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sup>10)</sup> 한국 인구의 20%-23%가 기독교 인구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은 전국에서 64% 가량 된다. 그 외에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꾼을

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2014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사회의 신뢰도는 조사시기마다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8%에서 19%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2009년(33.5%)를 제외하면 매년 44%를 넘는다.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비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 정도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여 기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로 인식되지만,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가톨릭교가 기독교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9) 강병오, 같은 글, 61-84.

10) 이준우,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의 현황과 방향성」,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9호, 2012년, 73-121.

배출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이만식<sup>12)</sup>의 연구에 따르면, 90%가 넘는 목회자들이 ‘사회봉사를 교회의 당연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개신교의 사회복지 활동이 역사적으로 왕성하게 전개되어 왔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극히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은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신학적 고찰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 II.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정립

###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 대한 개념정의는 그 사회의 특성과 문화, 사회복지 역사, 학자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에는 조직적,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과 방법론을 강조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인 사회복지에는 사회제도나 체계간의 조직적 활동

11) 강훈근, 「기독교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9권 1호, 2004년, 41-85.

12) 이만식,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태와 활성화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22집, 2004년, 493-516.

을 의미하며 인간의 복지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사회사업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독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서비스이자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상의 기능수행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도록 돕고자 하는 활동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과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혼용되어 쓰이거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사회사업을 포함시켜 사회복지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실례를 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협회 공고를 통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호주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복지사연맹에서 14년 만에 채택한 'social work'에 대한 정의를 한국어로 '사회복지'라고 번역한 부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sup>14)</sup>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징은 나라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경우 2원 1체형으로 학문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미시복지학과 거시복지학의 2원 체계로 이론중립을 추구하면서도 양자가 하나의 체계 속에 묶여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미시복지학의 학문적 뿌리는 미국의 사회사업(social work)에서 찾는 반면 거시복지학은 영국이나 유럽의 사회정책학(social policy)을 참조한다.”<sup>15)</sup>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은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강상우<sup>16)</sup>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던 사회사업학에 유럽의 사회정책학을 첨가하여 '사회복지학'이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신장

13) 박주현 외, 『사회복지실천론』, 창지사, 2014, 11-12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15)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7, 83

16) 강상우, 「기독교 사회복지 분광: 다양한 분광(스펙트럼)의 존재이유와 광의의 - 적극적 기독교 사회복지의 필요성」,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16권 3호, 2011년, 7-34.

개업 했다고 표현한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 역시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기독교 사회복지관련 개념들

박종삼<sup>17)</sup>은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을 우선 기독교와 교회라는 범주로 나누고,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선교, 사회목회 등의 범주를 배합하여 설명하였다. 이 범주에 따르면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사업, 기독교 사회봉사, 기독교 사회선교, 기독교 사회목회, 교회 사회복지, 교회 사회사업, 교회 사회봉사, 교회 사회선교, 교회 사회목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후 박종삼<sup>18)</sup>은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요약했다.

- (1) 기독교 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 기독교적 이념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하에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
- (2) 기독교 사회사업(Christian Social Work):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사회사업으로 교회사회사업보다 폭넓은 개념
- (3) 교회 사회봉사(Christian Social Service):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17) 박종삼,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2

18) 박종삼은 2005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행사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 신학” 이라는 강연을 통해 교회사회사업의 개념정립에 혼란을 초래하는 유사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종교적 신념과 신앙체계를 행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교회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relief), 개발(development), 옹호(advocacy)등의 봉사.

- (4) 기독교 사회목회(Christian Social Ministry):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서 행하는 사회봉사.
- (5) 사회선교(Social Mission): 교회의 사회봉사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개념. 교회의 선교적 기능에서 전도는 복음의 선포이고 봉사는 선포된 복음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회복지가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광의의 개념이고 사회사업은 실천 기술을 강조하는 협의의 개념임을 감안할 때 교회 사회복지나 기독교 사회사업은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보인다. 또한 유장춘<sup>19)</sup>이 지적한 대로 선교나 목회라는 용어는 이미 기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나 교회의 용어를 붙여서 쓰는 것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사업, 기독교 사회봉사, 교회 사회봉사라는 용어들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봉사라는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데다가 봉사의 주체와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사업이 대표적 용어가 될 것이다. 실제로 두 용어가 같은 듯 다르게 학계와 실천현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3.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서로 대립되는 상이

19)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세사회복지연구』 8권, 2002년, 86-135.

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가 제도와 정책적 측면을 강조한 광의적 개념이라면 사회사업은 전문적 실천 기술 측면을 강조하는 협의적 개념이다. 유장춘<sup>20)</sup>은 기독교가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 추상적으로 위치한 종교적 신념체계라면 교회는 그 신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킨 조직체계라고 구분하면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차이들을 대입하여 “기독교 사회복지는 거시적 개념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명자원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한편 교회 사회사업은 미시적 개념으로써, 교회의 원조 아래 진행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실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사업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교회가 기독교에 속하고, 사회사업이 사회복지에 비해 협의의 개념이므로 교회 사회사업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이며 기독교 사회복지론을 논할 때는 교회사회복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하는 용어를 지칭한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도 단순히 미시적 개념인 사회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조망을 통한 광의의 기독교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sup>21)</sup>

20) 유장춘, 같은 글, pp 90. 재인용

21) 강상우, 앞의 글

### III.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근거

#### 1. 하나님 형상(Imago Dei)과 생명사랑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본이 되는 신학적 가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Imago Dei)을 본받아 창조되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귀한 피조물이므로 어느 누구도 차별 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기독교 사회복지 는 그 회복을 돕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노력과 행위가 이웃 사랑이다.<sup>22)</sup> 김기원<sup>23)</sup>은 “기독교 사회복지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세상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체계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하며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본정신으로 생명존중, 이웃사랑, 성서적 정의 실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강조했다.

#### 2. 디아코니아 신학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기독교인의 사명을 교회 내적 사역과 사회를 향한 외적 사역으로 구분하여 왔다.<sup>24)</sup> 기독교인의 내적 사역으로는 예배공동

22) 김은수, 「하나님의 형상과 기독교 사회복지」,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6호, 2003년, 171-191

23)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장신논단』, 14호 1998년, 199.

체로서의 레이투르기아(leitourgia), 말씀공동체로서의 케리그마(kerygma)와 교육공동체로서의 디다케(didache), 친교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적 사역으로는 섬김과 복지 공동체로서의 디아코니아(diakoni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교회의 본질들을 따로 따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적 생명의 구원과 친교와 봉사를 통한 육체적 생명의 구원을 기독교인의 본질적 사명으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25)</sup>

디아코니아 신학이 지닌 강점은 역사적 교회사와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 신학과 사회복지 사이의 중요한 연결점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김동춘<sup>27)</sup>은 디아코니아의 교회성과 사회성의 측면을 강조하며 교회의 이웃 사랑의 사회적 실천인 디아코니아는 언제나 교회와 사회라는 두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복음주의 전통의 교회에서는 디아코니아를 사회적 관련성이 없는 교회내적 행위의 개념으로 여겨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회봉사’가 아닌 ‘교회봉사’로 이해했다. 이러한 개념을 ‘디아코니아의 사회성 없는 교회중심의 변형’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부흥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봉사에 대한 역할을 요구 받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회봉사의 영역을 세속적(국가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디아코니아의 교회성 없는 사회복지중심’의 사회봉사로 변형되었다고 본다.

디아코니아 개념은 교회사적 과정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초대 공동체 교회에서 집사직에 의한 구제는 사도직에 의한 말씀선포(kerygma)와 더

24) 이준우, 앞의 글

25)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년

26) 강상우, 앞의 글

27) 김동춘,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33권 2003년, 305-330.

불어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하나로서 교회사역의 교회공동체 내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46세기 구제사역의 기능을 담당하던 집사직의 역할이 예배의식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로 바뀌면서 집사의 사회봉사적 기능이 예전적 기능으로 축소되었다. 이제 구제나 자선행위는 예배 밖의 수도원 기관이나 평신도들에 의해 행해지는 기독교인의 미덕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16세기 헌금을 통한 자선으로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른다는 중세교회의 위선과 부패에 저항했던 루터 교회의 등장으로 구제(사회봉사)의 탈교회화(혹은 세속화)를 초래했다. 집사직의 세속화는 교회가 담당했던 빈민구제 혹은 사회봉사의 영역을 국가의 영역으로 위임하는 계기가 되어, 집사의 명칭을 시정부의 복지 담당자에게도 사용하기에 이르러 교회의 집사 직무를 국가의 공직과 동일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집사)의 사회봉사를 교회의 직무가 아닌 국가의 직무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칼빈은 초대교회의 전통에 근거해 집사직을 구제와 봉사를 위한 교회의 직무로 인정하고 교회적 사명으로서의 사회봉사를 강조했다.<sup>28)</sup> 교회의 봉사(Diakonia) 개념은 오늘날 교회의 사회복음(Social Gospel) 운동이나 종교사회주의 운동, 해방신학이나 정치 신학적 경험들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보다 사회구조적인 차원으로 확장하게 되었다.<sup>29)</sup>

이러한 '디아코니아' 개념은 '일반 사회복지' 개념과 구분되는데, 사회복지의 근본이념이 인본적, 사회학적 개념이라면, 디아코니아의 근본 개념은 이웃 섬김을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델이고 하나님나라의 현실을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는 교회의 사회봉사가 단지 사회봉사(사회복지)의 주체 혹은 수단이라는 개념에 머물지

28) 김동춘, 앞의 글

29) 박종삼, 앞의 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실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디아코니아 신학은 이와 더불어 영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포함한다.<sup>30)</sup>

### 3. 기독교인(교회)의 사회봉사(사회참여)를 배격하는 견해

한국 기독교가 사회봉사 혹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sup>31)32)</sup> 첫째, 한국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구원을 강조해온 반면 사회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는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이 밖의 일은 교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또한 구제나 교육 등 선행은 악한 일이 아니나 이러한 일에 힘을 쓰면 교회의 근본 사명인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도를 통해서 개인이 구원 받으면 그들이 변화하여 사회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 사회봉사라는 부수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처럼 선교를 주로 복음화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의 성과는 컸지만 선교의 인간화 차원이 간과되어 인간사회의 복지, 인권, 봉사 등이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이는 영적 세계를 이 세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다원화 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하는 것이

30) 김동춘, 앞의 글

31) 서정운,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기독교와 한국 사회』 3권, 1992년, 35-48.

32) 전광현,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 한국종교문화학회, 『종교학보』, 4집 2007년, 61-94.

절박한 일이지 사회봉사나 사회변혁에 힘쓸 시간이 없다고 여겨 중요시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는 개교회의 성장을 중요시한 나머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경시하였다.

#### 4. 사회문제에 대한 신학적 노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신학노선은 크게 보수, 중도, 자유주의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주의적 신학노선은 복음을 강조하여 개인구원만 감당하고 사회문제는 세속교회가 감당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중도적 입장의 신학노선은 신학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사회문제는 제도적 차원으로 이해한다. 자유주의 혹은 진보적인 신학노선은 사회문제를 사회학적 차원에서 다루고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장한다.<sup>33)</sup> 이문식은 한국 개신교를 선교에 대한 개념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보적 세력인 에큐메니칼(Ecumenical) 진영과 보수적 세력인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에반젤리칼(Evangelical) 진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여 ‘인간화’를 선교적 과제로 삼은 반면 에반젤리칼 진영은 ‘교회의 선교’를 강조하여 ‘민족 복음화’를 주장했다.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은 사회의 구조와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사회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창조, 정의, 평화, 생명 등의 성경적 가치를 실천한 반면 영적 차원과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불충분했다. 한편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우선시하여 구제에 힘쓰는 좋은 전통을 사회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sup>34)</sup> 하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 과거의 개인구원에 치중

33) 양찬호, 「사회복지신학은 필요한가?」,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6호, 2011년, 37-57.

34) 이문식,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의 방향성에 관하여」, 두란노, 『목회와 신학』, 2012년, 7월, 42-50.

했던 이분법적 신학의 틀과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획기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로잔 대회에서 결의된 로잔언약을 기점으로 전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지속 확대되고 있다.<sup>35)</sup> 이 시기부터 비로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불가분리의 요소로 생각하는 통전적인 선교관이 형성되었다.<sup>36)</sup>

교회는 복음전파와 사회봉사 중에서 어떤 것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세워지는 것이다.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부터 진보적 기독교 세력이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루는 것은 신학적 해석의 스펙트럼을 넘어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가 그 실천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IV.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고찰과 전망

##### 1. 역사적인 고찰

역사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혹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더 나아가 서구사회의 사회복지 발전사를 거슬러 볼 때 기독교는 수많은 전문적 사회복지 제도

35) 홍기영, 「로잔세계복음화 운동의 선교신학적 고찰-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헌신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복음과 선교』, 22집, 2013년, 151-194.

36) 서정운(앞의 글)은 이와 같은 선교관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했다. 선교(Mission)는 전도(Evangelism), 양육(Nurture), 친교(Fellowship)와 봉사(Service)의 복합체이다 (M=E+N+F+S). 그리고 봉사는 또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 행동(Social Action)로 세분화 된다.



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교회의 조직적인 사회구제 활동은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일곱 집사를 임명하고 복음전도와 구제사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집사를 칭하는 영어의 deacon은 사회봉사를 뜻하는 diakonia 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모든 자선활동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명령했다. 중세에 이르러 국가를 초월하는 권위를 지닌 교회는 오늘날 사회복지 시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수도원을 통해 자선을 베풀고 병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하고 보호했다. 중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선은 종교적 의무이며 구제를 위한 헌금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확인하는 길로 여겨져 자선행위를 칭송했다. 중세시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이었으며 1차적 역할은 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선을 통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중세 가톨릭의 위선에 저항하여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Martin Luther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에서 나온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영적인 분야를 관장하고 사회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빈민에 대한 구제도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회봉사에 대한 John Calvin과 John Wesley의 견해는 Martin Luther와는 달랐다. 장로교적 전통의 초석을 마련한 칼빈은 빈민구제가 기독교인의 사도적 의무(apostolic obligation)로서 전도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으며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는 교회와 기독교인은 빈민구제활동을 넘어서 적극적인 자활사업까지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사회봉사활동이 잔여적 자선 관념에서 박애의 관념으로 확대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중세 봉건주의 몰락과 교회의 쇠퇴,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의 확산과 산업발전으로 인해 빈곤과 실업이 더 이상 개인이나 교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자, 1601년 영국에서는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빈민법(The Poor Law)을 제정하여 국가주도의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실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늘어나자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사회 안정과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등 복지국가의 기틀이 되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다. 이후, 1880년대 독일의 사회보험 실시와 1929년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이 뉴딜정책과 함께 1935년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를 거쳐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를 둔 복지국가가 탄생한다.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해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활동을 강조했던 고전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힘을 잃고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케인지안 경제정책에 따라 국가주도의 경제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이후 세계2차대전의 종결과 기술문명의 발전, 실증주의의 확산으로 서구국가들은 경제 호황을 경험하며 적극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국가는 황금기를 맞게 된다.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사회복지에 관해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빈곤한 개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자,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제도권 밖에서 사회봉사단체를 설립하는 운동이 나타났다. 19세기 말에 나타난 도덕적 복지운동(Moral Welfare Movement)과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그리고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 등은 성직자, 성직자 가족,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정신으로 전개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실천적 이론, 사회조사, 교육, 지역사회 복지 등 전문 사회복지 분야의 효시가 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복지국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부담으로 위기를 맞는다. 이로서 강력한 국가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지안 경제정책은 비판을 받고,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 경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는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국가개입 반대, 복지지출 삭감, 민영화 확대 등이 주장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책임도 강조하는 복지 다원화 사상이 등장한다. 일례로 영국 블레어 수상은 안서니 기든스의 ‘제3의길’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국가와 민간이 상호 보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웰페어노믹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시민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와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자발적 대안으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제3섹터 개념이 등장한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부분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되는 이시기에 역사적으로 자선, 박애, 봉사 활동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 사회복지 혹은 교회 사회사업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 2. 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망 - 제3섹터의 등장과 복지적 경제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국가가 수행했으나 공공재

및 공공선과 같은 공적가치를 책임지던 중앙정부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부조직(NGO)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이윤만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비영리조직(NPO)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개념이 학문적 영역에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거나 일상의 세계에 합의된 용어로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NGO나 NPO라는 용어도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회나 학자에 따라 개념의 범위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NGO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45년 San Francisco 에서 열린 UN 회의였다. 국가마다 NGO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민권리를 옹호하거나 국제개발 및 국제원조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로 보기도 한다. NPO는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의 비영리 조직으로 예를 들면 비영리 병원, 대학, 복지관,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이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NGO 나 NPO 등과 같은 용어가 다양하게 등장하자 국가나 시장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부문 조직들을 포괄 수 있는 용어로 제 3섹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 3섹터란 제1섹터(정부)나 제2섹터(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의 공동체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시민사회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1970년 샤방-델마에 의해 처음 사용된 제3섹터 개념은 유럽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미국의 비영리부문, 그리고 영국의 자원봉사부문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37)</sup> 한편 비

37)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권2호, 2007년, 35-73.

영리 기관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자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를 광의의 제3섹터 혹은 제 4섹터라고 부른다. 제4섹터란 제1섹터인 정부, 제2섹터인 민간기업, 제3섹터인 비정부 기구, 비영리 단체와 달리 이윤과 공공의 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발전과 진화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등을 별도의 섹터로 분류한 것이다.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을 재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연구 기관, 민간 기관을 제4섹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뜻한 경제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신자유주의 주도하에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속에서 소외된 시장경제의 약자에 대한 부작용을 국가주도의 규제적 대안이 아닌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 개념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마을기업, 어촌 공동체기업, 사회벤처, 사회적 회사 등을 들 수 있다.<sup>38)</sup> 한편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성된

38) 최석현, 김군수, 이재광,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와 진단』 73호, 2012년, 1-22.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며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소유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 결사체를 의미한다. 마을공동체란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보다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이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시켜나가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칭한다.

간의 신뢰, 연대, 규범 등을 통해 협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sup>39)</sup>

## V. 결론: 기독교 사회복지의 나아갈 길 -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경제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sup>40)</sup> 또한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로 번영을 누렸던 매스마켓은 곧 사라지고 개인 맞춤형 생산체제와 유통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까지 세계적으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sup>41)</sup> 한편 지그메 틸레이 전 부탄 총리는 “인류는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모델로 인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행복을 잃어버렸다”며 “이제 세계는 행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sup>42)</sup>

39) 사회학자 퍼트남(R. Putnam)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는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본은, ①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③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가 강조된다(박희봉,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권1호, 2002년, 221-237.

40) 뉴시스, 2014-10-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4\\_0013230194&clID=10402&pID=104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4_0013230194&clID=10402&pID=10400)

41) MK 뉴스, 2014.10.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8>

42) MK 뉴스, 2014.10.1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일어나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상호 호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운동을 단순히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특이한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탈지역화가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의 지역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인 것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공유경제의 모델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도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며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착취와 정복으로 일관된 세계화는 타락한 방향의 세계화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화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sup>43)</sup> 박종삼에 따르면, 한 차원 높은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지역사회 속의 지역교회' 즉 '지역사회선교'이다. 지역사회 선교라 함은 이전에 멀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곳 원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제도, 활동, 지역 생활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책임을 통해서 '지역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학적, 실천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박종삼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생명신학'을 토대로 한 생명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다. 둘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실천적 능력을 키워 가는 '칭지기 사역'이다.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생명을 존중하는 믿음이 만나서 실천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셋째, '디아코니아 실천신학'의

---

1324664

43) 유장훈, 「세계화 시대의 교회사회사업 실천」, 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7호, 2011년, 71-110.

실현, 즉 기회창출을 통한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다.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중심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봉사는 ‘지역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심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44)</sup> 지역 주민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sup>45)</sup>

현대 사회의 위기는 공동체성의 파괴에서 기인한다.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어 가면서 인간성을 잃어가고 인간은 그 근본을 뿌리 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인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새롭게 되새기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는 시작되었다(사도행전 2장). 그리고 그 공동체는 끊임없는 핍박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제 다시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볼 시점이 되었다. 현대 사회의 위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끊임없는 욕망에 끌려가는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전통 속에 간직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안이 될 것인가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기독교인이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고 힘을 얻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해 주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하나님

44) 박종삼, 「지역사회의 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8권 2008년, 71-90.

45) 김혜령, 앞의 글.



나라'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 41집, 2012.
- 강상우. 『기독교 사회복지 분광: 다양한 분광(스펙트럼)의 존재이유와 광의의 - 적극적 기독교 사회복지의 필요성』.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16권 3호, 7-34.
- 강춘근. 『기독교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9권 1호, 2004년, 41-85.
-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장신논단』, 14호, 1998.
- 김동춘.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33권 2003.
-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7.
- 김은수. 『하나님의 형상과 기독교 사회복지』.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6호, 2003.
-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7집, 2013.
-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권2호, 2007.
-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년
- 박종삼.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2
- \_\_\_\_\_. 『지역사회의 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8권 2008.
- 박주현 외. 『사회복지실천론』, 창지사, 2014.
- 박희봉. 『조직내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권1호, 2002년, 221-237.
- 서정운.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기독교와 한국사회』 3권, 1992.

- 양찬호. 「사회복지신학은 필요한가?」.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6호, 2011년, 37-57.
-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세 사회복지연구』 8권, 2002.
- \_\_\_\_\_. 「세계화 시대의 교회사회사업 실천」. 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7호, 2011.
- 이만식.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태와 활성화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22집, 2004.
- 이문식.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의 방향성에 관하여」. 두란노, 『목회와 신학』. 2012년, 7월, 42-50.
- 이원규. 「21세기 한국교회의 변화와 수평이동 현상」.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52집, 2005.
- 이준우.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의 현황과 방향성」.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교회사회사업』 19호, 2012
- 전광현.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 한국종교문화학회, 『종교학보』, 4집 2007년, 61-94.
- 조성돈. 「종교인구 변동에 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과제」.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32권 0호, 2007.
- 최석현 · 김군수 · 이재광.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와 진단』 73호, 2012.
-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분석』, 도서출판 두란노, 1998.
- 홍기영. 「로잔세계복음화 운동의 선교신학적 고찰-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헌신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복음과 선교』, 22집, 2013.
-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갤럽. 2005.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78>
- 「가톨릭 신자 급증 · 개신교인 감소 왜?」 인터넷 경향신문 2006년 11월 3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301729351&code=96020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301729351&code=960206)

『새로운 사회복지의 정의(2014.7 IFSW)』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세계지식포럼] 제러미 리프킨 “협력적 공유사회 도래…사물인터넷이 자본주의 바꾼다”』

뉴스스, 2014-10-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4_0013230194&cID=10402&pID=10400)

[NISX20141014\\_0013230194&cID=10402&pID=104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4_0013230194&cID=10402&pID=10400)

『세계 석학들 “불평등, 자본주의 본질 요소 아냐”』 MK 뉴스, 2014.10.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교회갱신협의회, 2013.

<http://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67>

논문투고일: 2015. 02. 28.

심사개시일: 2015.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11.

---

• 국 문 초 록 •

---

한국 개신교는 선교초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사회복지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양적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정체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인으로부터의 신뢰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적, 신학적, 실천적 의미를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고찰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사적으로 기독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혹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구사회의 사회복지 발전사를 거슬러 볼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전문적 사회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이 발전되어 왔다.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살려서 급변하는 세계에 걸맞은 새로운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다. 기독교 전통의 핵심중 하나인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독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복지, 교회 사회사업, 공동체, 지역사회, 공유경제, 신자유주의

---